

## 김종한(金鍾漢)의 전향(轉向) 과정에 대하여

심 원 섭\*

I. 서론	V. 최초의 '사실수리론'과 '신지방주의론'
II. 전향 전의 김종한	VI. 전향 이후, 김종한의 전향 스타일
III. '이상적 시'와 현실의 문제	VII. 결론
IV. 유린되어 가는 청춘의 애가(哀歌): 전 쟁시 「살구꽃처럼」	<참고문헌> <국문요약>

### I. 서론

최재서와 더불어 암흑기에 활약한 2대 평론가로 불리는 김종한은 주로 친일문인 혹은 '신지방주의론'의 평론가로서 알려져 있다고 생각된다.<sup>1)</sup> 그러나 친일문학 활동기 이전의 김종한이 밸레리류의 '순수시론'을 신봉해 왔으며, 문학의 형상성을

\* 인하대학교 BK21 동아시아한국학 사업단 연구교수, 한국근대문학 전공(sws42@yahoo.co.kr).

1) 김종한에 대한 기왕의 이미지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임종국에서 시작된 친일문인으로서의 이미지, 두 번째는 조건부 대일협력론인 '신지방주의론'의 평론가로서의 이미지, 세 번째 시대적 한계 내에서 민족주의적인 저항을 시도한 시인으로서의 이미지이다. 첫째 유형은, 임종국,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79). 둘째 유형은 윤대석,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 사에구사 도시카쓰(외), 『한국근대문학과 일본』(소명출판, 2003); 정종현, 「식민지 후반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2005); 박수연, 「친일시의 계보」, 민족문화연구소 주최, 『제1회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심포지움: 일제하의 동북아문학』 발표문(2005.10.14~15). 셋째 유형은 大村益夫, 「金鍾漢について」, 『旗田魏先生朝鮮歴史論集(下)』(1979.3); 藤石貴代, 「金鍾漢論」,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7(1989.1) 참조.

최우선하는 한편 우주적인 사상을 압축적 양식 속에 담는 것을 추구하는 문학관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로 분명해졌다.<sup>2)</sup> 또 1939년 이후 국내에서 및 평론을 활발하게 발표하던 그가 1940년 말 경에 전향을 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논거들 역시도 최근 제시되었다.<sup>3)</sup>

이런 현상은 친일문인, 즉 전향 후의 이미지 중심으로 거론되어 온 김종한상(像) 외에 김종한의 또 다른 부분이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연구사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김종한 역시도 자신의 독자적인 문학적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시국의 추이 속에서 그 나름의 진통 과정을 거쳐 대일 협력의 길에 들어선 문인이라는 점, 즉 ‘전향 문인’의 한 명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그의 ‘전향’ 과정은 전향 시기나 환경, 스타일 등의 면에서 국내의 전향 문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갖고 있으며, 시국의 흐름에 대한 부분적인 저항 논리도 갖고 있는 등 그만의 독특한 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가설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전향 전의 김종한상을 간략히 정리하고 그가 전향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김종한 연구사에서 결락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김종한의 작품과 관련된 모든 인용은 『김종한전집』에 의거하기로 한다.<sup>5)</sup>

2) 심원섭, 「김종한의 일본유학 체험과 ‘순수시’의 시론」, 『한국문학논총』, 50집(2008a) 참조

3) 박수연은 김종한의 「살구꽃처럼」을 친일시로 보고 이 작품의 발표시기인 1940년 11월을 전향시기로 본 바 있다. 박수연, 앞의 논문, 4쪽. 그러나 이 작품은 실제로는 1940년 6월에 창작된 것으로, 이 「살구꽃처럼」을 전향의 근거로 삼는다면, 전향 시기는 1940년 6월 혹은 그 이전으로 잡는 것이 마땅하다. 본고는 「살구꽃처럼」을 친일시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향 시기 역시도 1년 정도 이후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 한편 심원섭은 사토 하루오에의 편지 내용 및 관련 평론들을 근거로 김종한의 전향 모색기를 1940년 말부터 1941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심원섭, 「김종한과 사토 하루오」, 『배달말』, 43집(2008b), 282쪽 참조

4) 김종한의 전향의 유형적 특성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향 후의 김종한의 활동상에 대한 전체적 검토가 끝난 후에야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전향 직후까지만 다른 본고에서는, 일단 김종한의 전향 유형의 큰 범주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입장”을 취한 개인 혹은 집단이 반체제적 입장을 억압하는 입장이나 국가주의적, 군국주의적 반동체제를 지배하는 입장으로 태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해두고자 한다. 이 유형 분류의 근거는 田中浩, 「轉向」, 『Yahoo百科事典Beta』[5\) 藤石貴代·大村益夫·沈元燮·布袋敏博\(편\), 『金鍾漢全集』\(綠蔭書房, 2005\). 이 책은 이후 『전집』으로 표기한다.](http://100.yahoo.co.jp/%E8%BB%A2%E5%90%91(접속일: 2009년 3월 6일) 참조</a></p>
</div>
<div data-bbox=)

## II. 전향 전의 김종한

1937년 도일(渡日)하기 전까지의 김종한은 민요시인이자 작품의 예술적 형상성을 최우선하는 평론 활동을 펴던 김억을 사숙하는 한편, 고향 민속 및 전통 여성의 애환의 세계를 주로 그린 민요시를 시단에 연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조선 문단에 자신의 존재를 상당 정도 각인시켜놓은 상태였다.<sup>6)</sup> 1937년 도일 후부터 그가 일본대학을 졸업하던 1939년 전후까지의 문학적 체험은, 문학적 형상성을 중시하는 그의 민요시시대의 문학관을 기반으로 하여, 193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서구문학 체험이 축적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sup>7)</sup> 졸업 후 2년여가 지날 무렵부터 ‘전향’과 관련된 그의 고민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서, 대학 시절의 그의 문학체험의 요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짧게 인용해두고 싶다.

우리는…[중략]…멀리 『神曲』으로부터 『유리씨즈』까지의 명작을 연구햇스며  
테-누의 『예술철학』을 독하고 바레리-의 『시학서설』을 논하엿던 것입니다. /  
[중략] 때로는 초현실파 야수파를 발하야 예술관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고 또  
는 도쓰토에프스키를 끄집어내여 사색의 기피를 닦기도 하엿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12월. ....졸업!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단어와다. 아무리 훌  
륭한 바레리-론도 취직선전에서는 하등의 효과를 못가지기 때문입니다.<sup>8)</sup>

김종한과 당시 유학생들이 닦아가고 있었던 문학적 토양이 서양 고전 중심의 백과전서적인 것이었음과 동시에 발레리에 대한 관심이 강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김종한이 이렇게 천진한 문학도적 체험을 겪었던 시기는 1937~1938년의 일이다.

1938년 말이라는 시기는,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6년의 2·26사건, 중국의 국

6) 김종한은 1935~1936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별건곤』 등의 신춘문예나 현상문예에 민요시가 연속적 당선된 적이 있다. 유명세에 편승하여, 그가 발표한 평론 「藝術民謡 存在論: 그 時代性과 土俗性에 關하여」(전4회), 『朝鮮日報』, 1937.2.20~24는 김사엽의 반론을 야기한 바도 있다. 이를 포함한 김종한의 국내 문학 수업시대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심원섭, 「김종한의 초기문학 수업 시대」, 『한국문학논총』, 46집(2007) 참조

7) 당시 김종한은 발레리 및 프랑스 상징주의자들과 건축가 부르노 타우트, 독일 시인 호프만스탈에 경도되어 있었다. 관련사항은 심원섭, 앞의 논문(2008a) 참조

8) 김종한, 「卒業을 앞둔 藝術의 殿堂」, 『朝鮮日報』, 1938.12.26.

공합작의 뒤를 이어 1937년 발발한 ‘사변’ 즉 중일전쟁이 확대되어가던 해다. 일본 문단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본격 전쟁 문학시대로 돌입해가는 시기, 즉 대부분의 문인, 지식인들이 군부의 전략적 방침을 이론적으로 합리화하는 전선(戰線)에 서는 것을 강요당하는 시대에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1938년은 그가 사숙했던 사토 하루오(佐藤春夫)를 포함한 문단 거물 및 중진들이 군부의 종용 하에 중일전쟁 전선에 동원되었던 시대였기도 하다.<sup>9)</sup>

한편 당시는, 내발적인 문학 기류 면에서는, 이식적인 서구문학을 거부하고 일본의 고전 속에서 일본문학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한편 전쟁을 낭만적 정신으로 미화한 ‘일본낭만파’와 이에 영합한 대중문화가, 전쟁문학을 문학 내적인 논리로도 뒷받침해가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했다.<sup>10)</sup> 이러한 전쟁기의 한가운데에서 김종한 등은 발레리와 서구 고전문학을 향유하는 천진난만한 대학시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발레리론도 취직 전선에서는 하등의 힘을 못가”겠다는 그의 추억담은, 실은 이러한 거대한 폭력 시대 속에서 유럽문학 중심의 문학체험을 갖고 있었던 ‘자유주의자 순수문학도’들이 처해야 했던 운명, 그리고 이런 문학적 풍토 속에서 성장했던 김종한이 장차 감당해야 했던 운명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 시기 김종한에게 있어서 발레리 등 서구문학 체험은 문학도의 일시적인 낭만적 체험에 그치는, 그런 종류의 체험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해 두고 싶다. 그가 일본대학을 졸업하던 즈음부터 국내 문단에 연속적으로 발표한 평론들의 일부를 인용해 둔다.

산문이 될 수없는 <그러한 관념>을 가진 부분이 시가 된다. 거기서 시문학의  
獨自性과 自律性이 분화되는 것이다. / [중략] 부루우노.타우트博士는 [중략] /  
“…東洋藝術의 特質의 하나는, 藝術觀이나 世界觀을 적은 對象 중에 宇宙의 인  
精神으로서 感受하는 곳이었다.” / [중략] 침의 시는 항상 적은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밀줄: 인용자).<sup>11)</sup>

9) 井村君江, 「評傳 佐藤春夫」, 新潮日本文學アルバム, 『佐藤春夫』(新潮社 1997), 69쪽; 호쇼 마사오 (외)/고재석(역), 『일본현대문학사』(문학과지성사, 1998), 217쪽.

10) 尾育生, 『戰爭詩論 1910~1945』(平凡社, 2006), 100쪽 참조.

11) 김종한, 「나의 作詩 設計圖」, 『文章』, 1939.9.

詩에 있어서는 내용이 형태에 內屬하는 것이므로 언어 자체의 미를 떠나서는 여하한 시상도 사상도 공허한 개념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략] / 임화가 아니라 아인스타인의 사상이라도 사상 자체는 직접으로는 시와 관련성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 [중략] 어즈버「最高의瞬間」에의 지향과 염원을 가지지 못한 감정이란 것이 얼마나 저급한 것인가를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적 법열」이나 「神에의 일치」나 「氣運生動」이나 또는 「無邪念」「眞性」 등의 용어로 번역하야도 좋습니다. / 순수시의 이론도 쉽게 말하면 寒山詩의 서문인 「凡讀我詩者, 心中須護淨」에 가미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밀줄: 인용자).<sup>12)</sup>

위의 글들은 1938년 발표된 최재서의 「시단 총평」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띤 글로서, 특히 임화의 '사상시'를 비판하는 한편 정지용의 시를 극대적으로 옹호하는 논리가 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글들이다.<sup>13)</sup> 이 점을 염두에 놓고 위의 글들 속에서 그가 강조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본다.

- 내용에 대한 형태의 우위성,
- 언어미와 시문학의 독자성 및 자율성에 대한 중시,
- 문학적 형상성을 갖추지 못한 사상시의 배격
- 최고의 시 = 짧은 양식 속에 우주적인 정신을 압축해놓은 시
- 최고의 시 = 순수시 = 종교적 수행의 최고단계와 동일한 시적 법열의 소산

이상이 '전향'기를 맞이하기 이전 김종한이 갖고 있었던 문학관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III. '이상적 시'와 현실의 문제

시에 대한 김종한 나름의 이상이 드러나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위의 기록들 속

12) 김종한, 「詩文學의 正道」, 『文章』, 1939.10; 『전집』, 388~389쪽.

13) 최재서의 시단 총평 내용 및 관련 상세 사항은 심원섭, 앞의 논문(2008a), 제4장 참조.

에는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있다. 김종한이 ‘이상적 예술’로 생각하고 있었던 세계 와, 그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사변’ 이후의 폭력적 현실,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정신적 경지를 구현해낸다는 그의 ‘이상적인 시’와 그러한 시의 구현을 가로막는 ‘폭력적 현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것은 김종한의 이후의 정신사를 살피는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김종한의 전향은 후자, 즉 폭력적 현실의 힘이 전자, 즉 ‘이상적 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압도할 때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논리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윗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의한다.

고뇌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뇌를 어떻게 수리하며 예술성에까지 승화시키는가, 하는 곳에 문학의 본령이 있는 것입니다.<sup>14)</sup>

시국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젊은 김종한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쉽게 발언한 듯한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예술성에까지 승화시” 킬 수 있는 창작의 여건이 상실되었을 경우, 즉 ‘고뇌’ 자체도 허용되지 않는 문학적 환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술적 승화’만 가능하다면, 이런 문제까지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일까? 극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터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예술가 개인의 영웅적인 용기나 능력이 필요할 것임은 물론이다. 김종한은 이 난제에 대한 추가적 발언을 담대하게 계속해 간다. 그 논리가 정점에 오른 것이 다음 해에 발표된 「시단시평」이다.

現實의 重壓이란 詩人에게는 感動의 色彩를 의미하는 차라리 행복스런 創作動機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現實의 貧困에서 출발한 夢現의 세계가 超現實主義였다면, 현실의 多彩에서 출발하는 우리에게는 좀더 화려한 시의 만개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 어느 세기인들 괴롭지 않았으랴. 모든 문학사의 저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눈물뿐인 것이다…[중략]… /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시대의 결빙을 깨트리고 사내답을 미소를 보혀줄수 있는 건강한 南

14) 김종한, 「詩文學의 正道」, 『文章』, 1939.10; 『전집』, 389쪽.

方的 성격을 가진 시인은 없는가. 그러한 표정을 가진 시인을 가르켜 나는 第一級의 시인이라고 한다. / 多樣性을 내포한 一様性, 苦惱를 내포한 微笑, 그리하여 시인들은 하로바삐 감성의 원시인을 탈피하지 않으려는가.<sup>15)</sup>

이 글은 1940년 10월 시단에 대한 김종한의 시평 내용인데, 위에서는, “현실의 중압,” “괴로운 세기,” “시대의 결빙” 등의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전까지의 그의 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경향은, 김종한이 “현실의 중압감”에 대한 감각, 즉 시국에 대한 감각을 전보다 더 실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단 위의 논리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실의 중압 = 행복스런 창작 조건

현실의 다채로움 = 화려한 시의 만개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

1급 시인 = 시대의 결빙을 깨뜨리고 사내다운 미소를 보여주는 건강한 남방적  
시인

1급의 시 = 다양성을 내포한 일원성, 고뇌를 내포한 미소

『詩文學의 正道』(文章 1939.10)에 제시했던 “고뇌”와 “문학적 형상화”의 관계 논의를 발전 확대화시킨 논리다. 그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역설적으로 좋은 작품이나올 수 있다는 논리를 집요하게 확대해가면서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작품의 출현을 기다린다고 공표하고 있다. 시국의 추이에 맞서는 짚은 시인·평론가 김종한의 패기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것은 시단을 향한 것인 동시에 시인인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한 발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어쨌든 김종한은 다음 해에 이르러 드디어 자신의 대망론에 부합하는 작품을 찾아낸다.

『雪岳賦』를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바지만 朴斗鎮처럼 안심하고 읽을수 있는 新人은 없을 것이다. 絶望을 健康化하는 特異한 手法은 인간적 크기에서 오는 것일가. 이 커다란 시상을 에스프리 모테르느(근대정신)의 교양으로 일 차 세탁해 주었으면 좀더 넓은 공감층을 획득하련만은.<sup>16)</sup>

15) 김종한, 『詩壇時評』, 『文章』, 1940.11; 『전집』, 412쪽.

16) 김종한, 『詩壇時評』, 『文章』, 1941.1, 144쪽; 『전집』, 413쪽.

그가 예찬한 박두진의 「雪岳賦」의 일부를 본다.

나는 눈을 감어본다. 순간 - 번스득 永遠이 어린다…인간들! 지금 이땅우에서  
서로 아우성치는 數많은 人間들…인간들이 그래도 滅하지 않고 오래 世代를  
이어 살어갈것을 생각한다. //  
우리族屬도 이어 자꾸 나며 죽으며 滅하지않고 오래 오래 이땅에서 살어갈것  
을 생각한다. //  
언제 이런 雪岳까지 원통 꽃동산 꽃동산이되어 우리가 모두 서로 노래치며 날  
뛰며 진정 하로 和暢하게 살어볼날이 그립다. 그립다.<sup>17)</sup>

박두진의 이 「雪岳賦」 속에는, 김종한도 이야기한 바, 현실의 중압상이 적극적으로 다뤄져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물론 박두진은 그 중압의 원인을 특별히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물론 겸열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지만, 그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 현실관—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과 상호 폭력은 불가피한 것이라는—내지 종말관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김종한이 1940년대 시단을 총평한 위의 「시단시평」 속에서, 그가 과거 호의적으로 평가해 온 이용악, 오장환, 유치환에게 비판을 가하면서까지 높은 평가를 내린 시인이 이 박두진이다. 그에 대한 김종한의 호평은, 그의 지론, 즉 고난 속에서 좋은 시가 태어난다는 주장을 실증하는 예문을 발견했다는 자기 성취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김종한은 그가 “절망을 건강화하는 수법”을 갖고 있다고 하고, 그것이 “인간적 크기에서 오는 것,” “커다른 시상”이라고 했다. 다소 구두선(口頭禪)적인 냄새를 풍기는 선(禪)취미를 갖고 있었을 뿐, 박두진이 갖고 있었던 사상과 거리가 먼 세계 속을 살고 있었던 김종한에게 있어,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른다.<sup>18)</sup> 이런 바램을 갖고 있었던 그가, 《文章》 1940년 1월호에

17) 박두진, 「雪岳賦」, 6~8연, 《文章》, 1940.11; 『전집』, 105쪽.

18) 김종한은 『詩文學의 正道』(《文章》, 1939.10)에서 “순수시의 이론도 쉽게 말하면 寒山詩의 서문인 「凡讀我詩者, 心中須護淨」에 가미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라고 쓴 바 있다. 주 12) 본문 참조. 불교 수행시에 정통한 것 같은 논조를 쓰고 있지만, 그의 寒山詩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급조된 것이다. 그가 寒山詩를 읽은 것은 길어야 이 글을 쓰기 불과 2, 3개월 전이었다. 그는 동반 여행을 거절했다는 ‘그녀’로부터 1939년 7월 『寒山詩』(岩波文庫)를 선물 받은 직후 위의 글을 썼다. K記者, 「詩人が語った新しさについて」, 《婦人画報》, 1939.8, 175쪽; 『전집』, 383쪽 참조.

발표되었던 이육사의 ‘고뇌’의 시 「絕頂」, 동년 7월 『인문평론』에 발표되었던 「喬木」을 못 보았거나 혹은 지나쳐버린 것은 대단히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시대의 결빙을 깨뜨리는 건강한” 시인을 찾던 김종한, 고뇌야말로 좋은 시 창작을 위한 최상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던 김종한, 그 자신의 창작은 어떠했던가. 그도 실은 박두진이 「설악부」를 발표한 《문장》 11월호에 시를 이미 한편 발표한 상태였다. 창작일자가 이 해 6월로 되어 있는 문제작 「살구꽃처럼」이 그것이다.

#### IV. 유린되어 가는 청춘의 애가(哀歌): 전쟁시 「살구꽃처럼」

「살구꽃처럼」의 전문을 본다.

살구꽃처럼 / 살구꽃처럼 / 電光 뉴쓰대에 하늘거리는 / 戰爭은 살구꽃처럼 滿發했소//  
 音樂이 血液처럼 흐르는 이밤 / 살구꽃처럼 / 살구꽃처럼 흘날리는 落下傘部  
 隊 / 落花들 꽃이 아니라 / 쓸어 무심하리오//  
 음악이 血液처럼 흐르는 이밤//  
 청제비처럼 날아오르는 총알에 / 맛받이로 正中線을 얻어맞고 / 살구꽃처럼,  
 불을 吐하며 / 살구꽃처럼 떨어져가는 융커機//  
 음악은 血液처럼 흐르는데//  
 달무리같은 / 달무리같은 나의 青春과 / 마지막線과의 관련 말씀이죠? / 제발  
 그것만은 묻지말아주세요//  
 音樂은 혈액처럼 흘려 흘려, / 고향 집에서 편지가 왔소 / 全州白紙 속에 하늘  
 거리는 / 살구꽃은 / 살구꽃은 戰爭처럼 滿發했소//  
 音樂이 血液처럼 흐르는 이밤//  
 살구꽃처럼 차라리 웃으려오 / 音樂이 血液처럼 흐르는 이밤//  
 살구꽃처럼 차라리 웃으려오 / 음악이 血液처럼 흐르는 이밤 / 戰爭처럼 / 戰  
 爭처럼 살구꽃이 滿發했소(六月 三日)<sup>19)</sup>

19) 김종한 「살구꽃처럼」, 《文章》, 1940.11, 98~101쪽; 『전집』, 88~91쪽.

‘시대의 결빙을 깨뜨리는 건강한 시’ 대망론을 펼친 김종한이 쓰고 있었던 시는 ‘전쟁시’였다. 전쟁시는 김종한의 시력(詩歷) 속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르이며, 1년 여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가 창작에 나서게 되는 장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장르 선택 자체 속에 이미 ‘시대의 결빙’이나 그의 전향의 전조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작품이 친일적 내용의 작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이 작품에 “흩날리는 낙하산 부대”나 격추되는 “용커機”的 모습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김종한이 소재를 ‘전광 뉴스대’나 홍보용 영화 속에서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 이 작품은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최대한 미적인 이미지로 치환하여 표현하려는 시적 의장이 특징적이다.

이 작품의 비유의 중심축은 전장(戰場)과 “만발한 살구꽃”이다. 그리고 이 비유를 청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구가 “음악은 혈액처럼 흐르는데”이다. 이 삼자(三者)의 비유적 뭉치가 각 연마다 새로운 보조 비유를 추가해가면서 작품의 끝까지 흐르고 있다. 조지훈의 「落花」에 그 연원이 있을 법한 “落花들 꽃이 아니랴 / 쓸어 무심하리오”라든가, 지용에게서 따왔을 법한 “청제비처럼 날아오르는 총알에”와 같은 인유(引喻)적 구들도 이런 시적 의장에 포함된다. 말하자면 이 작품은 전쟁이 갖고 있는 부정적 속성과 살구꽃으로 대표되는 미적·평화적 이미지를 병치시켜가는 방법으로 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이 김종한의 전향을 알리는 작품이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소개한 바 있다.<sup>20)</sup>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작품은 전쟁을 소재로 한 ‘전쟁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친일시’라는 증거는 없다. 일본의 전쟁 이념에 동의를 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추락하고 있는 전투기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커機”는 일본의 동맹국인 독일 전투기일 가능성이 높다.<sup>21)</sup>

20) 박수연, 앞의 논문, 4쪽.

21) “용커기”라는 기명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했으나, 1930년대 중반 독일에서 개발 중이던 전투기에 장착했던 독일제 엔진명에 “용커스”라는 명칭이 나온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용커가 ‘귀족’을 의미하는 독일어이니, “용커기”가 독일전투기를 의미하는 명칭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용커스”라는 엔진명과 관련된 기록은, 첫사랑, 「[전투기] 메서슈미트 Bf109(독일/BFW)」, <http://blog.naver.com/2geonchang/100024411629>(접속일: 2008년 12월 20일).

두 번째, 이 작품은 전쟁 자체를 옹호하고 있지도 않다. 이 작품은 전쟁 장면을 미적인 장면과 병치시켜 보여주는 시적 의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전쟁을 예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전쟁을 바라보는 화자의 주된 정서는 비애(悲哀)다. ‘원하지 않으나 벌어지고 만 비극’을 바라보는 청춘의 비애감이라 할 만한 것이 이 작품의 저변을 흐르는 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된다.

그에 대한 명료한 표현이 6연에 제시되어 있다. “달무리같은 / 달무리같은 나의 青春과 / 마지노線과의 관련 말씀이죠? / 제발 그것만은 묻지말아주세요”에서 “달무리 같은 나의 청춘”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김종한이 자신의 인생을, 말하자면 ‘저물어가는 희미한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다. 전쟁이라는 극한적 시국 상황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또는 청춘으로서의 정상적인 욕구 실현의 기회를 상실해버린, 혹은 그런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 지식인의 비애 혹은 절망감이라 할 만한 것이 이 구절에 역력히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화자의 생각이 시편의 마지막에 짧게 요약되어 있다. 마지막 두 연 속에 두 번 반복되어 있는 “살구꽃처럼 차라리 웃으려오”가 그것이다. 이 표현에 의하면, 살구꽃이라는 존재는, “차라리 웃”는 존재다. “차라리 웃”는다는 행위 이면에는 ‘우느니’가 자리하고 있다. 벌어져서는 안 되나 결국 벌어지고 만 불가항력적인 전쟁, 이 절망이 확약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차라리 웃으려” 한다는 서글픈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벌어지고 만 전쟁’에 대한 절망감에서 우러나오는 고소(苦笑), 이것은 김종한 자신의 시론을 빌면 “고뇌를 내포한 미소”의 세계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쟁 속에서 유린되어 가는 청춘에 대한 애가(哀歌)’ 이것을 필자는 이 작품의 실질적인 주제라고 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오히려 반(反)전쟁적인 이면적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으로서, 대부분 구호적인 친일 시 일색인 당시의 전쟁시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데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김종한이 이 작품을 쓴 동기는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 자신이 대망해 온 바, “시대의 결빙을 깨뜨리고 사내다운 미소를 보여주는 건강한 남방적 시인,” “다양성을 내포한 일원성, 고뇌를 내포한 미소를 지닌 1급의 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바로 이 「살구꽃처럼」이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사내다운 건강한 미소를 보여주는 남방적 시”라는 그의 첫째 대망(待望)을 충족시켜준 것은, 그가 상찬한 박두진의 「설악부」였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의 항목, “다양성을 내포한

일원성, 고뇌를 내포한 미소를 지닌 1급의 시”의 영예는 아마도 자신의 「살구꽃」으로서 실천이 가능하리라고 그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일찍이 정지용이 일찍이 김종한의 시 속에서 “비애를 기지로 포장하는 기술”<sup>22)</sup>을 읽어낸 적이 있기도 하지만, 김종한은 자신의 시론을 이 작품을 통하여 어느 정도 실천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싶다.

## V. 최초의 ‘사실수리론’과 ‘신지방주의론’

1940년 11월 「살구꽃처럼」을 발표하고, 1941년 1월 “시대의 결빙을 깨뜨릴” 시를 대망한다는 기원을 공표한 「시단시평」을 발표한 김종한은 같은 해 1월 『三千里』에 「조선 문화의 기본자세」라는 평문을 발표한다. 김종한이 국내에 발표한 평문 중에서는 최초로 일본어로 써어진 글이기도 하다. 1941년 1월 발표작인 이 글이 써어진 것은 1940년 말일 터인데, 이 속에는, 시국을 바라보는 김종한의 태도 속에 이전까지와는 다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작금처럼 문학은 문화로, 문화는 정치로 이행한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칭찬 받는 문학, 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비평씨는 의식하면서도(도망가면서도) 우선 칭찬부터 해둔다. 칭찬을 받아도 기분이 나쁘다. / 사변 아래 날로 양양되고 있는, 조선문학에 대한 내지 문단의 관심도 그런 것일 것이다. 문화백년지 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저널리즘이 발작적으로 이광수나 고정 등을 선전해 본 것이니, 엄숙한 문화재의 축적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일까. 하나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그런 시대다. 아마 이걸로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닐까.<sup>23)</sup>

김종한이 여기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간단하다. ‘개인의 문학 행위’가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시대의 결빙을 깨뜨릴 수 있는 문학,’ 즉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예술의 가능성,’ “시대의 중압이 차라리 행복스러운 창작의 조건”이

22) 정지용, 「詩選後」, 『文章』 1939.8, 62쪽.

23) 김종한, 「朝鮮文化の基本姿勢」, 『三千里』, 1941.1, 61쪽, 『전집』, 415쪽. 원문은 일본어. 졸역.

라고 주장해 온 것이 김종한의 이전까지의 비평 논리였다면, 여기서는 시국의 절대 우위성을 인정하는 김종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김종한의 심정이 윗글의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다.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그런 시대다. 아마 이걸로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닐까”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비록 일본 문단의 조선 작품 선고(選考) 안목을 비판하는 문맥에서 나온 말이지만, 김종한은 역시 이곳에서 처음으로 문학에 대한 정치의 절대 우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김종한이 도달한 1940년 말의 모습이다. 그는 이 시기를 즐음하여, 예술가의 의지적 능력의 위에 존재하는 외부적 힘, 즉 시국의 압도적인 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김종한의 이러한 ‘사실수리론’이 체념이나 시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하기는 시기상조다. 김종한다운 독설적 태도가 이 논조에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1939년과 1940년에 성행한 조선 문학 작품의 일본 소개 현상이 “저널리즘의 발작”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 일고 있었던 조선문학 봄이 대동아공영권 이념의 실천을 위한 시국적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sup>24)</sup> 김종한의 이 말은 이러한 시국의 흐름을 비꼬는 발언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는, 후일 본격화되는 그의 조건부 대일 협력론인 ‘신지방주의론’의 초기 형태를 이곳에서 제시한다.

단 이 경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이 과도기라는 것이다. 즉 작금, 東京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문화의 中央集權의인 동향은, 단순한 명일의 문화에의 준비운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 中央集權의인, 새로운 文化的 준비운동이 끝나면, 順序로서 필히 地方分權의 文化的 萌芽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즉 朝鮮에는 朝鮮다운 것, 만주에는 滿洲다운 문화가, 新體制의 서치라이트 중에서, 스스로 사명과 위치를 발견하여, 새로운 自律獨으로 향한 자세를 취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24) 심원섭, 「일본에 대한 소개 현황과 특성」, 설성경·김영민·최유찬·양문규·심원섭, 『통일한국의 문화진로와 세계화 방안 연구』(새미, 2002), 407쪽 참조

김종한은 동경에서 유행하던 조선문학 봄을, “문화의 중앙집권적인 동향”이라는 한 마디로 일축하고 있다. 이것은 한·중 작가들에게 일본어 창작이 권유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sup>25)</sup> 조선문학 봄을 둘러싼 시국의 핵심을 김종한이 꿰뚫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다음이다. 김종한은 이 “중앙집권적인 동향”이 “과도기”에서 필히 “지방분권적인 문화”가 도래하는 시기가 오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이하 내용은 후일 그의 친일문학론의 대명사처럼 된 ‘신지방주의론’의 초기 형태임이 분명하다.

일본에서도 이런 논리가 나온 적이 있는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터이나, 일단 논조로 보아서는 이것이 김종한의 독자적인 판단처럼 느껴지는 바가 있다.<sup>26)</sup> 어쨌든 이것은 당시의 신체제 문학이 지향하는 흐름에 대해 김종한이 건 일종의 ‘브레이크’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 여기서 김종한은 이전까지 주장해 오던 ‘문학의 정치 극복 가능성’론을 접고, 시국의 우위, 정치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신, 문화의 주도권까지 동경 중심으로 빼앗기지는 않겠다는 일종의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오랜만에 회사일로 조선에 돌아오니 일부 작가들이 No more-never more!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고 슬펐다. / 조금만 더 있으면, 조선문화의自律해 마땅한, 基本姿勢 같은 것도, 분명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의 희망도 信賴도 태어날 것이다. / (그 시대에는 小生도 귀국할 계획이다. 값싼 잡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 인간이 망가질 것 같아서, 경성에 돌아오면 뒤꼬치집이라도 개업하고 시를 쓸 계획이다.)<sup>27)</sup>(밑줄: 인용자)

25) 1939년 1월 『文學界』 좌담회 「朝鮮文學の将来」에서 일본측 참석자인 林房雄 秋田雨作은 동석한 조선작가들을 향해 일본어로 창작을 하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1940년 2월에는 ‘외부의 종용’에 의해 씌어진 흔적이 역력한 장혁주의 「朝鮮の知識人に訴ふ」에도 같은 요지의 발언이 보인다. 任展慧, 「朝鮮側からみた日本文壇の朝鮮ブーム」, 『海峡』, 1984.3, 12쪽.

26) 혹 일본측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지방주의론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합의까지 수용할 가능성이 없음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다음과 같은 일부 예를 제시할 수 있다. 좌담회 「新しい半島文學の構想 座談會」에서 일본측 참석자 다나카 히데미즈는 김종한이 제기한 신지방주의론에 대해 이런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런 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반대에요. 역시 중앙집권 쪽이 좋겠죠” 신지방주의의 논리를 수용해 들이는 일본측의 마지노선이 이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新しい半島文學の構想 座談會」, 『綠旗』, 1942.4; 『전집』, 558쪽 참조.

시국의 압도적 힘을 인정한 김종한이었지만, 그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조선 작가들의 절망적 포오즈를 확인한다. 문제는 그 이후다. 그는 여전히 희망적인 논리를 편다. 그의 희망의 근거는 앞에서도 확인한 바, 그의 ‘신지방주의론’에 있다.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 시국이 빼앗아간 조선 문학의 생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절망적인 시국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전향(前向)적 정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김종한의 사고방식은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희망적인 ‘여건’이 마련될 때, 김종한은 귀국하여 전업 시인으로 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는 1년 여 뒤인 1942년 초에 귀국하는데, 그의 귀국은 ‘선술집 시인’으로서의 귀국이 아니라, 『국민문학』 편집자로서의 ‘금의환향’적인 귀국이었다. 이 1년 남짓한 기간의 그의 마지막 일본 체류 경험의 배후에는, 그가 스승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공언한 바 있는 일본의 국민 시인 사토 하루오(佐藤春夫)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 “전쟁이라는 것을 처음 겪는 터라 아직 개심까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시국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그에게 “배수진을 치고 시국에 임하라”는 가르침을 준 사토 하루오와의 사제관계가 그것이다. 그는 사토 하루오의 이 조언을 듣고 “구원이라도 받은 느낌”이었다고 후일 쓴 바 있다. 그의 ‘전향 결심’에는 이 사토 하루오와의 만남 역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8)</sup>

이렇게 하여 귀국한 그는, 후일 한국문학사에서 김종한이라는 이름의 대명사처럼 된 ‘신지방주의론의 전도사’로서 활약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신지방주의론의 전도사’ 역할이라는 것은, 전면적인 문단활동을 전개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1942년부터 전면적 문단 활동에 참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그것은 시국에의 전면적 협조 포오즈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부분적 저항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투항을 한다’는 모순 속에 그는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다.

27) 김종한, 「朝鮮文化の基本姿勢」; 『전집』, 416쪽.

28) 인용문 내용은 김종한, 「佐藤春夫へ」, 『國民文學』, 1942.4; 『전집』, 436~437쪽 참조. 기타 전향 결심 즈음의 김종한과 사토 하루오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심원섭, 앞의 논문(2008b), 280~284쪽 참조.

## VI. 전향 이후, 김종한의 전향 스타일

이후 김종한은 『文章』 1941년 4월호에 두 번째 전쟁시 「航空哀歌」를 발표한다. 이 작품은 시국색이 강화된 느낌은 있으나, 역시 전작 「살구꽃처럼」처럼 ‘전쟁 속에서 유린당하는 청춘의 애가’로서의 특징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친일시’라는 평가와 더불어 이 작품을 사장시키고 싶지 않은, 김종한의 시국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짙게 남아 있다. 이 작품의 ‘친일성’에 대한 직접적 평가를 미루고 보면, 이 이후의 그의 행보는 다음과 같다.

그는 이해 즉 1941년 말까지는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1942년 초 귀국한 후 2월부터 『국민문학』의 공동 편집진이 된다. 7월부터는 창씨명 月田茂를 사용한다.<sup>29)</sup> 1942년 1월에는 “내선일체에 헌신하고 있는 한 명의 문화인의 운명의 인과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노래”한 「園丁」을, 3월에 명백한 시국시인 「春服」과 문제 평론 「一枝の倫理」를, 4월에는 “대동아의 건설에 참여하는 반도인의 풍모와 감격을 벽화화하려” 한 시국시 「合唱에 대하여」, 자신의 전향 경위와 신지방주의론의 골자를 밝힌 서간문 「佐藤春夫先生へ」, 좌담회 「新しい半島文學の構想」 등 문제평론을 잇따라 발표한다. 이렇게 하여 그 후 2년 뒤 급성 폐렴으로 사망할 때까지 시국 문단의 한가운데에서 좌충우돌을 벌이는 그의 ‘전향’ 후의 인생행로가 본격화되는 것이다.<sup>30)</sup>

그가 귀국을 하게 되는 1942년 초부터는, 김종한은 ‘전향자’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1942년 1월에 써어진 그의 일본어 수필 한 편을 본다.

저 스스로도 일본에는 미가 없다, 동양은 야만적이다. 라고 자기비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그리고 전쟁이 터졌지요. 파리의 유행도 미국 영화도 안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중략]…이러니 그때까지 서양에 의존하고 있었던 미학자나 의장가들은 꿈쩍할 수가 없게

29) 김종한, 「金東煥抒情詩集 海棠花」, 『國民文學』, 1942.7, 115쪽; 『전집』, 448쪽 참조.

30) 시 「園丁」과 「合唱에 대하여」에 대한 설명 내용은 김종한, 「新しい史詩の創造」, 『國民文學』, 1942.8; 『전집』, 452쪽.

되었죠. / 그러자 예의 브루노 타우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서양인에 의해 ‘일본미의 재발견’이 행해지는 바보스러운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도기인 셈이죠 그는 그의 저서 『일본의 영혼』에서 도코노마를 상찬하고 다도에 경도합니다. 과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일본인의 “자기의 미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노출하는 효과밖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훌륭함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영미가 일본인에게 뒤집어 써운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전쟁은 일본인에게 본연의 자신감을 부여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인의 미의식(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이 동아를 풍미하고 세계의 미학과 유행을 지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sup>31)</sup>

부인용 잡지에 발표한 글답게, 김종한의 당시 생각이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전향’한 김종한이 대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논리의 골자가 간단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문학 활동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우선 그는 영미 문화의 우월성을 부정한다. 그리고 자신이 2년 여 전 발표한 「나의 作詩 設計圖」(1939) 속에서 그토록 찬양했던 브루노 타우트, ‘짧은 형식 속에 우주적인 주제를 담’아야 한다는 명제를 제공해준 ‘일본미의 전도사’ 브루노 타우트마저도 부정한다.<sup>32)</sup> 마지막으로 영미적 ‘자유주의’를 부정한다. 이 영미적 ‘자유주의’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의 대학시절의 문학 수업 내용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시대의 결빙을 깨뜨리는” 건강한 문학을 대망한다는 자신의 1년 전의 시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가 달려간 곳이 ‘세계를 영도해가는 일본의 문화’론이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행해지는 일본의 대(對) 세계 전쟁이다.

이즈음에 이르면 김종한이라는 문인 개인의 사고방식은, 후일 그의 문단활동의 대명사가 된 ‘신지방주의론’을 빼고는 그 대부분이 자취를 감춘다. 국내 평단 데뷔 기인 1939년부터 1940년대 초기까지 때로는 신랄하게 때로는 순진한 논조로 “시대의 결빙”에 맞설 ‘순수’하고 ‘건강’한 문학의 출현을 대망했던 신세대 시론가 김

31) 김종한, 「美しくありたい心」, 『新女性』, 1942.1, 27쪽; 『전집』, 419쪽. 원문은 일본어. 졸역.

32) 주 10) 내용 참조.

종한의 모습은 그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이 글 속에서 김종한이 펴고 있는 논리는, 총동원체제 속에서 ‘국민’이 소유해야 했던 국책의 논리이며, 일본 문단과 사상계의 엘리트들이 총동원되어 만들어낸 ‘근대의 초극논리’의 가정판(家庭版)에 다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 속에 나타난 김종한의 ‘전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갖춘 것이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한 김종한의 시국에의 협력 포오즈는, 그것이 전향자라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집단’의 목소리로 표출되어 있다는 점도 이 지점에서 주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이러한 집단적 인격으로서의 ‘전향’ 포오즈는, 문인 김종한의 내면에서의 동조가 수반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종한이 은닉해 놓은, 혹은 은닉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목소리의 존재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조심스럽게 타진해 본다면, 그가 은닉해놓은 개인적 목소리가, 시국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반(牛)타협적 논리로 표출되어 나온 것이, 그의 이후 활동의 중심이론이 되는 ‘신지방주의론’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가설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본격 논의는 다음의 고찰 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지금까지 고찰해 온 바, 김종한의 전향 과정이 갖고 있는 특성을 요약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첫째, 그의 전향은 일본 체류 시절에 이뤄졌다. 발레리 류의 ‘순수시’론과 브루노 타우트 등의 일본문화론에 입각하여 조선시단의 개조를 외치던 그의 야심찬 평론활동은, 그가 대학 졸업 후 《부인화보》 기자로 일하던 1939년 봄부터 1941년 말까지 일본에서 씌어져 국내로 보내지는 방식으로 발표된 것들이다. 김종한의 ‘전향’ 모색은, 이 일본 체류기의 말기, 김종한의 직접적인 증언을 빌자면, 1941년 9월 ‘해양문화사’로 전직하면서 “내선문학에 기여하는 잡지를 기획하던” 즈음, 그리고 같은 시기 그의 스승 사토 하루오(佐藤春夫)로부터 “배수진을 치고 시국에 임하라”는 조언을 들었을 때 그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3)</sup>

두 번째 그는 이 시기 국내 문인들이 겪어야 했던 직접적이고 신변적인 집단폭력에 노출된 적이 없다. 그 시기에 그는, 비록 총동원체제가 무르익어 가던 일본사회 속에서였다고는 하나, 대학에서 자유주의적 교육과 서구문학의 세례를 듬뿍 받

---

33) 주 28) 내용 참조.

으며 생활하는 ‘특혜’를 누렸던 인물이다. 그 특혜가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충만한 그의 야심찬 ‘신세대적 시론’들을 만들어낸 자양분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그가 전향을 결심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은 압도적인 시국의 영향, 두 번째는 국내 귀환을 앞두고 있었던 그의 개인적 야심이다. 첫 번째 ‘시국의 영향’에 관해서라면 다음과 같은 일본측 기술을 인용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르크스주의자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도 위험 사상으로 간주되었으며, 서구의 모든 사상을 버리고 국체의 본의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국적인 사상개조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단지 위의 강요 때문이라고 말하기만은 어렵다는 점이다. 하야시 후사오나 시마키 겐사쿠를 비롯한 마르크스주의에서 전향한 작가들과 마르크스주의와 일정한 한계를 가졌던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들까지 스스로 그런 사상 개조에 의한 전향의 완성을 목표로 삼게 된 것이다.<sup>34)</sup>

발레리를 신봉하는 자유주의자 김종한은 원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다.<sup>35)</sup> 그런 의미에서 그의 전향의 사상적 패턴을 ‘자유주의자로부터의 전향’이라고 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개인이 지니고 있었던 사상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국에 동참하지 않거나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분위기였다. 이 거국적·총체적 전향의 분위기 속에서 김종한도 시대적 흐름 속에 동참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두 번째는 국내에의 성공적 귀환을 꿈꾸던 것으로 보이는 그의 개인적 욕구 문제다. 그는 신세대 논쟁이 진행 중이었던 1939년경부터 순수문학을 주장하는 도발적인 비평문들을 국내 문단에 계속적으로 발표하며 문단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sup>36)</sup> 그의 비판대상 속에 당대 최고의 평론가 최재서가 포함되어 있었던

34) 호쇼 마사오(와)/고재석(역), 앞의 책, 214쪽.

35) “충실했던 막스의 제자들은 위대한 속물인 막스의 배설물을 시적 이념으로 오신하고 시의 예술성을 선전비라에까지 低落시켜버렸습니다.” 김종한, 「詩壇改造論」, 『朝光』, 1940.3; 『전집』, 404쪽 참조.

것은 물론이다. 이런 그의 도발적 비평 활동의 근원에 국내 문단에의 데뷔 욕구가 은닉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의 연령이나 경력을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런 그가 ‘신지방주의론’을 펴나가기 시작하던 시기와 최재서가 그를 《국민문학》 편집자로 발탁한 시기는 순차적으로 일치한다. 그는, 그와 동세대를 이루었던 국내파 신세대 대부분이 신체제의에 동참을 거부하고 붓을 꺾기 시작하던 그 시대에,<sup>37)</sup> 당시 문예지로서는 최고의 ‘활동무대’였던 《국민문학》 편집자라는 명예와 더불어 국내로 ‘금의환향’하는 것이다. 이것이 후일 ‘친일문인 김종한상(像)’의 직접적 시발이 되는 것이었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 VII. 결론

김종한은 민요시인으로 출발했다. 일본 유학시대에는 서양 고전에 대한 섭렵과 더불어, 시작(詩作) 과정을 종교적 수행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했던 벨레리류의 순수시론 및 프랑스 상징주의, 우주적 사상을 압축적 형식으로 표현하는 미적 이상을 제시한 브루노 타우트 등의 예술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학 졸업 후 2년 여 일본에 거주하면서 그가 국내에 발표했던 시론들 속에는 그의 이러한 예술적 이상(理想)이 잘 요약되어 있다.

한편 시국의 추이와 더불어, 그의 이상(理想)주의적 시론들은, ‘현실의 중압과 다채로움이 행복한 창작의 조건’이며, ‘시대의 결빙을 깨뜨리는 건강한 시,’ ‘다양성을 내포한 일원성, 고뇌를 내포한 미소’를 지닌 시를 대망한다는 논리로 종합·집결된다. 그는 1941년 1월, 박두진의 『雪岳賦』 속에서 자신의 시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한편, 자작시 『살구꽃처럼』(1940.11)을 통해 자신의 시론을 현실화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향 직전, 김종한이 도달했던 ‘민족주의적 시인’으로서의 최상의 문학적 단계가 이 지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941년 1월 그는 ‘사실수리론’적 입장과 더불어 자신의 ‘신지방주의론’의

36) 당시 평단의 신세대론의 추이와 김종한 등 신인세대가 그 속에서 자리하고 있었던 위치 등에 대해서는, 김윤식, 『한국현대문학 비평사』(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97~205쪽 참조.

37) 김윤식, 위의 책, 205쪽.

골자를 최초로 제시한 글을 발표한다. 시국의 힘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한편, 시국에 의해 희생당한 조선문학의 존재가치의 일부를 ‘신지방주의론’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편 「조선 문화의 기본자세」가 그것이다. 이후 그는 4월 두 번째 전쟁시 「航空哀歌」를 발표한 후, 소강상태를 갖다가 1942년 초 《국민문학》 편집자로서 귀국한다. 이 당시부터 그는, 자유주의자, 영미문학 애호가였던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근대의 초극’ 논리를 펴는 전형적인 전향 문인으로서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준다. 그 첫 문장이 「美しくありたい心」(1942.1)이다.

김종한의 ‘전향’은 1939년 대학 졸업 후, 일본에서 부인화보사 기자를 거쳐 해양문화사에 재직 중이던 시기, 그리고 그의 스승 사토 하루오로부터 “배수진을 치고 시국에 임하라”는 조언을 들었던 1941년 가을 즈음에 준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민문학》의 편집자가 되어 귀국하는 1942년 초부터는 적극적으로 전향자로서의 문단활동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경과를 볼 때 그의 전향은, 1930년대 국내에 장기 거주하던 문인들이 겪어야 했던 전향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이뤄졌음이 발견된다. 그는 국내에서의 전향이 일단락되었던 1930년대 말엽 및 1940년대 초엽까지도 일본에서 학창 및 직장 생활을 영위하면서, ‘영미(英美)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문학’의 분위기를 늦게 까지 누릴 수 있었던 인물이다. 이 시기 그가 국내에 발표했던 그의 야심찬 ‘신세대적 시론’들의 이면에는, 이러한 특수한 이유가 있다. 그랬던 그가 뒤늦게 전향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주의자, 민족주의, 자유주의자를 막론하고 일본 국민 전체의 전향이 강요되던 일본 사회 내의 총동원적인 전향의 분위기, 두 번째는 전향을 해서라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문학관과 반(反)시국적 이론을 펼치고 싶었던 그의 개인적 욕망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두 번째 욕망의 문제의 핵심에 그의 ‘신지방주의론’, 그리고 ‘시국문학이라도 예술적 형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의 독특한 시국문학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필자 나름의 가설이지만, 김종한은 그 자유주의적이고 분방한 문학적 체질로 보아, ‘충실한’ 전향이 가능한 그런 유형의 인물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싶다. 1942년 이후, 즉 ‘친일문인’으로서의 그의 활동 내역을 면밀히 보면, 그가 ‘전향’ 과정에서 부정했던, 혹은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자유주의’, ‘영미’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구호적인 시국문학’을 내내 비판했던 태도 속에도 그 면모가 드러나 있다고 생각된다. 그 한편에, 전향자 김종한의, 시국에 대한 부분적 저항 방책이자 심리적 자기 보상책이라고 부르고 싶은 ‘신지방주의론’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한 정밀한 고찰을 후일의 연구 과제로 삼고 싶다.

### 참고문헌

- 김윤식, 『한국현대문학 비평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박수연, 「친일시의 계보」. 민족문화연구소 주최, 『제1회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심포지움: 일제하의 동북아문학』 발표문, 2005.10.14~15.
- 설성경 · 김영민 · 최유찬 · 양문규 · 심원섭, 『통일한국의 문화진로와 세계화방안 연구』. 서울: 새미, 2002.
- 심원섭, 「김종한의 초기문학 수업 시대」. 『한국문학논총』 46집, 2007, 307~337쪽.
- 심원섭, 「김종한의 일본유학 체험과 ‘순수시’의 시론」. 『한국문학논총』 50집, 2008a,
- 심원섭, 「김종한과 사토 하루오」. 『배달말』 43집, 2008b, 265~288쪽.
- 임종국, 『친일문학론』. 서울: 평화출판사, 1979.
- 윤대석, 「국민문학의 신지방주의론」. 사에구사 도시카쓰(외),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서울: 소명출판, 2003.
- 정종현, 「식민지 후반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양론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05.
- 호쇼 마사오(외)/고재석(역), 『일본현대문학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8.
- 藤石貴代 · 大村益夫 · 沈元燮 · 布袋敏博(編), 『金鐘漢全集』. 東京: 緑蔭書房, 2005.
- 大村益夫, 「金鐘漢について」. 『旗田巍先生朝鮮歴史論集(下)』. 1979.3.
- 藤石貴代, 「金鐘漢論」. 『九州大學 東洋史論集』 17. 1989.1.
- 井村君江, 「評傳 佐藤春夫」. 新潮日本文學アルバム, 『佐藤春夫』. 東京: 新潮社, 1997.
- 任展慧, 「朝鮮側からみた日本文壇の朝鮮ブーム」. 『海峡』 1984.3.
- 尾育生, 『戦争詩論 1910~1945』. 東京: 平凡社, 2006.

## 국 문 요 약

민요 시인으로 출발한 김종한은 일본 유학시대에 발레리의 순수시론 및 프랑스 상징주의, 건축가 브루노 타우트 등의 예술관에 경도되었다. 그는 이러한 문학관을 바탕으로 1939년부터 야심적인 신세대론적 시론들을 국내에 발표한다. 그의 이상(理想)주의적 시론은, ‘현실의 중압이 행복한 창작의 조건’이며, ‘건강한 시’ ‘다양성을 내포한 일원성, 고뇌를 내포한 미소’를 지닌 시를 대망한다는 논리로 종합·집결된다. 박두진의 『雪岳賦』와 자작시 『설구꽃처럼』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 했던 이 시기가, 전향 전, 김종한이 도달했던 ‘민족주의자’로서의 최고의 문학적 단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941년 1월 그는, 문학에 대한 시국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한편 조선 문학의 존재가치를 ‘신지방주의론’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편 『조선 문화의 기본자세』를 발표한다. 1941년 말에는, 그의 스승 사토 하루오로부터 “배수진을 치고 시국에 임”하라는 조언을 받는다. 그리고 1942년 초 『국민 문학』 편집자로서 귀국한 뒤부터, 자신의 ‘영미적(英美的),’ ‘자유주의적’ 과거를 부정하고 ‘근대의 초극’ 논리를 펴는 전향 문인으로서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준다. 그 첫 문장이 『美しくありたい心』(1942.1)이다. 이상의 경과를 볼 때 그의 전향은 1941년, 약 1년간의 모색 기간을 거쳐 1942년 초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향의 유형 면에서 보자면 그의 전향은, 국내에 장기 거주하던 문인들의 전향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졌음이 발견된다. 그는 국내에서의 전향이 일단락되었던 1930년대 말엽 및 1940년대 초엽까지도 일본에서 거주하며, ‘영미적,’ ‘자유주의적 문학’을 향유할 수 있었던 인물이다. 이 시기 그가 국내에 ‘자유주의적,’ ‘영미적’ 신세대론적인 시론들을 발표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 그랬던 그가 뒤늦게 전향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 국민 전체의 전향이 강요되던 일본 사회 내의 총동원적인 전향 분위기, 두 번째는 전향을 해서라도 국내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문학론을 실현하고 싶었던 그의 개인적 욕구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두 번째 문제의 핵심에 그의 ‘신지방주의론’ 그리고 ‘시국문학’이라도 예술적 형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의 득특한 시국문학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   |                      |                      |
|---|----------------------|----------------------|
| ● 투고일 : 2009. 1. 10.  | ● 수정일 : 2009. 3. 10. | ● 게재일 : 2009. 3. 12. |
| ● 주제어(keyword) : 김종한(Kim-Jon Han), 전환(conversion), 신지방주의(Neo-Localism), 발레리(Vallery), 순수시(Pure poetry), 신세대론(Theory of New-generation). |                      |                      |